

고은 불교대하소설



85

아겠다는 생각이 났다. 멀리 지나가는 이 양산을 우너 소식들도 보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청나라 배일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부러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심시키려는 뜻이 입을 열자마자 그런 말로 된 셈인가.

요즘 인담은 스승 담인을 꿈속에서 만난 이래 제대로 수행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입정(入定) 때에도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다.

물 건너 세상

“잠자거나 조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인을 생각하구려. 잠이나 자려거든 옛날 동해 낙산사 중 조신(調信)이 잠들었다가 꾸는 꿈속이 차라리 나으리.”

이런 말을 지난 날의 수원과 수월을 꾸짖으며 했던 인담이 아니던가. 잠이 없는 인담에게 지구 잠이 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기가 그 잠 때문에 스승을 꿈속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며칠 뒤 인담이 우너에게 말하였다. “건너갔다 오셨오. 세상 형편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또 종랑을 만나면 어찌시려고요. 호호.”

“아무튼 궁금한 세월이오.”

“누가 말리던가요. 다녀오세요. 이제 우리에게도 철한 한 적이 있어야지...겨우 때때나 나뉘더라도 다녀오세요. 호호.”

인담이 섬에 남아있던 낡은 나뉘 한 척을 단단히 묶어두었다가 밧줄을 풀러 타고 육지로 건너갔다. 사흘 말미였으나 닷새만에 그는 후줄그레해져서 돌아왔다. 무사하게 돌아온 것만 해도 반가운 일인데 곡식과 밧가지 긴요한 것들도 실어온 것

한다. 그 도적 가운데는 현양의 망나니도 하나 끼여있어서 그에게 걸리면 영남없이 목이 날아간다고 하였다.

우너들로서는 마치 옛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그 흥흥한 세상에 대한 실감이 없었다. 섬의 생활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아니 그들의 수행 자체가 세상에 대한 실감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세월이 오는 것 같은데...충청도지방 유림(儒林)에서 엄금



“邪學이 은밀히 퍼지고 괴질이 돌아 민심이 흉흉하니 우리 불법도 새로운 세월에 나아갈...”

이다.

지금 세상에서는 사학(邪學)이 백성사이에 은밀히 퍼져가고 있고 사학뿐 아니라 괴질도 퍼져가며 많은 목숨을 앗아간 다 하였다.

사학은 주로 청나라 쪽에서 배로 건너 오는데 그들의 배후에 이양선의 힘이 있다 하였다. 그런 이양선은 불란서의 것이 고 그것과는 달리 영국의 철선은 조선 서해안의 이곳저곳을 속량까지 해간다는 것이었다.

또 인담은 그가 서산과 합덕 일대를 다녀오는 길 위에는 송장들이 한 무더기씩 쌓여 있으나 누구 하나 그것들을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한다.

그뿐만 아니었다. 인담도 서산 신도로부터 받은 엽전 한 꾸러미를 그 아래 걱정 재에서 지키고 있던 도적에게 빼앗겼다

“나라야 이름이라도 달고 있는 모양이지만 그 나라를 맡은 임금이나 오히려 할 것 없이 한양이나 의적까지도 인오지 백성을 탐학하는 노릇밖에 못하니...”

“언젠가 동지사(冬至使) 일행이 연경(燕京)에 다녀오는 길에 아편 현연하는 기구를 몰래 들여왔다가 혼퐁이 났다 하는데 진작부터 좌의정과 좌의정 소실이 함께 아편을 팔아 그 물량경(物量境)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소문도 자자하더이다.”

“이미 기율이 저야 할 것이라면 기율이 저야겠지요.”

인담의 우수(憂愁)에 따라 우너까지 무거운 입을 열기 시작하였다. 서로 부부는 아니지만 오래 함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어니듯 용모도 닮아가고 성정(性情)도 서로에게 다가가 나중에는 누가 누구인줄 모르는 것만을 남겨 두고 있는지 모른다.

그렇게 인담과 우너는 터럭 하나도 서로 익숙한 바였다.

“나 당분간 쉬겠소. 우너님께서는 소식 이하고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던지 방어리 염불-참선-을 하던지 하구려.”

“정녕 화상께서는 바림이 나도 단단한 것입니다. 내가 낮게 할 법력(法力)이 없으니 그대로 볼 수밖에요.”

“왜 그런 법력이 없었오. 그러나 나를 내버려두구려.”

인담은 낙배를 저어 사내를 구했다 “당신 누구요” “상감마마가 승하...소인은 개성인삼...”

이렇게 허물없는 사이의 말을 놓 반 진반으로 주고받는 것이 소식에게는 기이한 느낌이었다. 해묵은 부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스승이고 제자인지 분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두사람이 평등한 동료로서의 도반도 아님에 틀림없었다.

“가세나.”

라고 우너가 그런 소식을 불러 그들의 처소로 갔다.

인담은 이렇게 해서 한동안 먹고 자고 할 때를이었다. 마치 무욕도량의 한 심심하기 짝이 없는 가족이라도 될 것 같이. 바다안개가 자욱한 저녁무렵이었다. 저쪽 안개 속에서 문득 어떤 소리가 먹먹하게 들려왔다.

안개에 눌린 것 같은 바다는 마치 연주 직전의 어전(御前) 궁중 아악공(雅樂工)

들처럼 광광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잔물결인들 그 작은 소리를 안개가 빨아들임으로써 그 소리를 낼 수 없었던 것 일까.

이런 때는 바다속의 고기들도 바다위의 사경을 질작하는 분봉 때문에 좁다 깊은 데로 내려가서 헤엄쳐가는 일도 삼가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바다속은 그래도 정지된 것이 아니다.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조류 드디어 그 소리가 들렸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그 소리에 힘이 다 빠져 있었다. 인담이 벌떡 일어나 재빨리 낙배 매어 둔 곳으로 갔다. 가다가 바위굴에 발등을 다쳐 피가 났지만 그런 것을 알게 될 여지도 없었다.

그는 안개속의 그 소리 난 곳을 짐작하며 노를 저었다. 노젓는 소리만이 그에게는 초조함과 함께 가장 마음 든든한 이웃이었다.

“어느 쪽이요?”

라는 인담의 큰소리가 보내어졌다. 하지만 대꾸가 없었다.

그는 더욱 겁이 날만 하였다. 동시에 그는 그 사람을 반드시 구조해야할 신념에 불탔다.

“사람 살려요.”

이 말이 바로 그가 저어가는 배 뒤쪽에서 날줄이었다.

그가 안개속을 뚫듯해서 한 물체에 가볍게 충돌하였다. 한 물체란 꽤 큰 못배였는데 뚫어 내리쳐 있었다. 바로 그 뺏전에 한 상투장이 사내가 늘어져 있는 것이 흡사 승장이었다.

배와 배를 비껴가 맨 다음 인담은 그 배로 건너가 사내의 숨결을 짚어보았다. 숨이 남아 있었다. 아주 세찬 손바닥으로 눌어진 사내의 따귀를 갈겨냈다.

어디 그 뿐인가. 명치 끝에 주먹을 쥔 것이다.

“어이쿠!”

하는 소리가 사내의 입에서 나왔다. 살 아닌 것이다.

“누구요? 당신 어디서 온 누구요?”

“상감마마가 승하하셨답니다. 소인은 개성인삼 잠상(善相)이옵니다. 살려주소서.”

그림 · 조향숙

중은 책의 신실, 우리출판사가 권하는 「한글세대를 위한 고승의 발자취」 시리즈 탄생!

불교와 역사의 만남, 깨달음의 대하를 손목으로 헤쳐나간 고승들의 치열한 삶의 역동기!



「한글세대를 위한 고승의 발자취」(전10권) 시리즈의 특징

- 1 해당 인물의 사상을 전경한 한글시대 작가들이 집필한 본격고승전
- 2 광대한 자료조사와 정기간에 걸친 집필
- 3 한글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정서와 문체 사용
- 4 깨달음과 직언의 글자담을 찾아온 큰스님들의 거룩한 생애를 현대적으로 형상화한 정선
- 5 한국 불교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고승 초상화
- 6 주인공 소개 및 인공 낱말 찾아보기 등 참고자료 실부

사과꽃 떨어지면 사과 썩히고
김서습 편

역사의 움직임을 언제나 현상화해왔던 한민족의 역사적 행적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수백 년 수천 년을 두고 보면 역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지, 그 방향과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그 방향과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
보조국서 지음 편

고려 4기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대이다. 그간 세력 경쟁 속에서 불교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어 갔다. 그러나 이 책은 고려의 불교사상을 조망하고 있다. 이 책은 고려의 불교사상을 조망하고 있다. 이 책은 고려의 불교사상을 조망하고 있다...

떨어져도 큰산으로 남는 스님
성철 스님 편

성철 스님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신념을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우리 세대의 불교를 진흥시킨 인물이다. 또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불교사상가로서, 불교의 진리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한 인물이다. 이 책은 성철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조망하고 있다...

풍금치는 큰스님
용성 스님 편

용성 스님은 불교의 진리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한 인물이다. 또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불교사상가로서, 불교의 진리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한 인물이다. 이 책은 용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조망하고 있다...

허공에 매달린 물병
부설기서 편

부설기서는 불교의 진리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한 인물이다. 또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불교사상가로서, 불교의 진리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한 인물이다. 이 책은 부설기서의 생애와 사상을 조망하고 있다...

하늘이여, 땅이여
이저든 편

이저든은 불교의 진리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한 인물이다. 또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불교사상가로서, 불교의 진리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한 인물이다. 이 책은 이저든의 생애와 사상을 조망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던, 앞선 디자인, 생동감 있는 작품. 한글세대에겐 자신있게 권합니다.

- 1 사과꽃 떨어지면 사과 썩히고 김서습 편
- 2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보조국서 지음 편
- 3 떨어져도 큰산으로 남는 스님/성철 스님 편
- 4 풍금치는 큰스님/용성 스님 편
- 5 허공에 매달린 물병/부설기서 편
- 6 하늘이여, 땅이여/이저든 편
- 7 부처는 누구요, 왜지/유학자 지음 편
- 8 푸른 땅의 노래/조향숙 지음 편
- 9 꽃무덤 없는 소가 되어/조향숙 지음 편
- 10 청선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사라지고/조향숙 지음 편

한글이니까

지속스님이 들려주는 불교이야기

지음: 조향숙/김서습/김보국/김용성/김부설/김이저

우리출판사